

양호교사의 활동기

민 경 숙

서울 대곡국민학교 양호교사

회색의 하늘에서 하얀 가루를 내려주던 날 그 아이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인가도 없는 산마루를 돌아 흙탕길을 20분쯤 걸어가면 나뭇잎 사이로 펠릭이는 태극기가 보이고 교문앞에 우뚝선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색다른 분위기에 젖게 한다.

여섯학급에 재적은 320명이고 도심속에 자리한 조그마한 전원학교였다.

유리창 너머로 띄엄띄엄 보이는 스투트 지붕 외에는 병원도 약국도 대중목욕탕도 없는 곳이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같은 처마끝에 붙여 지은 구멍가게 뿐이고 파는것은 간단한 학습도구와 라면, 과자, 콜라, 사이다뿐이기에 생활용품 구입은 일원동이나 개포동 시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학교가 있는 동쪽으로 “광평대군”의 묘역이 있고 앞쪽에는 산수가 수려한 대모산의 정기를 받아 계곡마다 약수터가 있어 강남의 주민들이 휴일을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고 약수마시러 찾는 곳이기도 하다.

이토록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문명의 이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포장안된 도로가 불편하게 느껴졌고 한시간에 한대씩 다니는 시외버스 시간에 맞출수 없어 걸어다니는 현실을 짜증스러워하고 있었다.

조그마한 동산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대도시의 밀집된 아파트 단지고 하쪽은 도서벽지와 똑같은 분위기였기에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전혀 달랐다.

본관에서 비탈길을 한참 오르니 옛날에 관사로 쓰던 온돌방을 양호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천정은 여기저기 비가 새어 얼룩이 져있었고 물받이가 망가져서 밖으로 보이는 천정에 합판조각들이 여기 저기 늘어져 있고 나무로 된 출입문도 썩어서 언제 넘어질까 걱정이 되었다. 뒷문밖은 산이고 버섯을 키우느라 지어논 움막들을 천으로 가려놓은 모습이 웬지 모르게 으시시하게 만들었다. 여름이되면 벌레나 해충이 얼마나 많을까? 뱀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양호실 안을 들여다 보았다. 침대하나 책상하나 약장하나 그것이 전부였고 구석에 놓인 연탄난로는 그물이 빨갛게 녹이난채 뚫어진 뚜껑사이로 가스를 뿜어내고 있었다.

높은곳에 있기때문에 물도 본관까지 내려가 길어다 써야하는 형편이었다. 무엇보다 제대로 갖추어진것이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대책이 서질 않았다. 양호실 환경을 바꾸어 가자면 경제적인 뒷바침이 필요한데 6학급인 학교예산이 몇푼이나 되겠는가?

당장 양호실을 옮기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생활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리라 생각하며 청소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양호실 입구에 수북히 쌓아 놓았던 사료와 연장들을 모두 치우게하고 해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쓸어냈다. 활짝열린 창으로 넘어드는 공기가 아직은 싸늘했지만 본관을 오르내리며 걸어올린 물로 손톱밑이 아파올때까지 닦고 또 닦았다.

첫날부터 하는꼴이 웃웁게 보였던지 직원들의 시선이 내게로 모아졌지만 못본척하고 청소에만 열중했다.

“양호선생님! 그렇게 열심히 할필요 없어요 2

년동안 편안히 쉬었다 가는 곳이라 생각하고 근무하세요”

내가 힘겨워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난 교감 선생님 그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수가 없었기에 더욱 열심히 정리 정돈을 했다.

날씨가 추웠지만 냄새나는 연탄난로를 떼어버렸더니 올가을에는 새난로를 사준다는 약속을 하고 교장실에 쓰던 작은 난로를 양호실에 놓아 주시고 구멍난 비닐장판도 새것으로 갈아 주셨다.

이제는 아이들이 문제였다. 학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최고 학력이고 거의가 국민학교나 중학교 졸업이었으며 직업은 노동 파출부 청소부 행상등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시내에서는 도저히 방한칸 얻어살 능력이 없어서 이곳까지 밀려와 정착한 사람이 많았다. 원주민들이 몇가구 살고 있는데 조상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아온 농민들이며 결손가정도 많았다. 방한칸에 한가구가 살고있으며 삶에 찌들리어 오늘밥을 먹고 난후엔 내일을 걱정해야하는 사람들이기에 학교엔 관심이 전혀없고 수업준비물도 제대로 챙겨보내지 않아서 기초학력도 도심지 아이들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3월인데도 아이들의 손등은 모두 터져있었고 목덕미를 씻지 않아 까맣게 때가끼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 보내는 부모에게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서 보건교육을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다.

먼저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위생생활을 습관화 시켜보기로 하고 수업시작하기 20분전에 보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화장실 사용법이었다. 재래식 화장실만 사용하던 습관 때문에 변기속에다 종이를 집어넣어 걸핏하면 변기가 막혀 뚫느라고 애를 먹곤 했었다.

“올바른 잇솔질” “손씻기” “목욕하기” “손톱 발톱 깎기” “옷빨아 입기” “실내화 빨아신기”

다행히도 TV나 VTR 시설은 갖추어져 있었기

에 VTR 필름을 구해 보여주고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제작해서 TV로 방영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하나 하나 아동을 놓고 시범을 보이며 TV수업을 실시한후 그다음 시간에는 현장에 임해서 화장실 사용을 실제로 해보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넣고 물을 충분히 흘려보내는 실습을 시켰다. 전교생을 불소용액양치를 실시하면서 “올바른 잇솔질” 방법도 지도했다.

보건교육시간에 이론과 VTR 필름으로 이따이 하는것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이해할수 있을때 수돗가에 치솔, 치약, 컵을 들고 모이게 한다. 이따기 시범을 보이면서 같이 이를 닦았더니 이따는 습관도 생활화 되었고 불소용액양치를 하게되니 충치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항상 책상속에 자기컵, 칫솔, 치약을 준비해 두고 점심식사후에 이를 닦게하고 깨끗한 이를 보이며 예쁘게 옷을 때마다 만나는 선생님마다 칭찬을 해주었더니 아이들은 신이 나서 더욱 열심히 이를 닦았다.

매주 토요일은 숙제가 없는 날이다. 대신에 실내화 빨아신고 옷빨아입고 목욕하고 손톱 발톱 깎고오기로 약속을 한다. 처음에는 관심도 없고 지키려고 노력하는것 같지도 않더니 하나 둘 지키는 아이들을 담임이 검사해서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해주었더니 차츰 차츰 옷도 실내화도 깨끗해져가고 손톱도 짧게깎아 손톱밑에 때가 끼인 아이들도 줄어들어갔다. 수돗가에 비누를 준비해 주었더니 체육시간이 끝난후나 점심식사전에 수돗가로 물려가는 아이들의 숫자가 매일매일 늘어갔다.

전혀 무관심하던 아이들이 이토록 달라져 가는것을 지켜보며 새로운 용기가 생겼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한번 시도해 보자” “언제 어떤 방법이 좋을까” 몇일을 고민하다 교장 선생님께 의논해 보기로 했다. “하는것은 좋은데 생각대로 잘될까” 격려보다는 걱정이 크셨지만 한번 부딪혀 보기로 하고 학년별 학부모 협회를 열기로 했다. 가정통신문을 만들어 내보

내는날 교실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다. “선생님이 부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한분도 빠짐없이 꼭 나오시도록 여러분이 애써주어야겠어요” “무슨말인지 알겠지요?” “네 선생님! 걱정마세요” 이젠 웬만큼은 아이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자신있게 대답하는 모습들이 대견스럽기도하고 내마음을 다 읽은것 같아 고맙기도 했다. 반정도만 나와주셔도 성공이라는 생각을 하며 새벽부터 설레이는 가슴을 달래가며 출근을 했다.

첫날은 1학년 학부모들이 모이는 날이다. 이게 웬일일까? 56명의 아동중 50명의 어머니들이 나와 주셨다. 나는 너무도 고맙고 기뻐서 눈물이 날것 같았다. 학부모 총회를 한다고 했더니 선생님들모두가 코웃음을쳤다. 되지도 않을 일을 해서 여러사람 귀찮게 한다고 직접대고 불평을 했었기에 더더욱 나오신분들이 고마웠다.

교장선생님께서 간단히 학교상황을 설명하시고 난후 나를 소개해 주셨다. “우리 320명 어린이의 건강을 담당한 양호교사 민경숙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하며 몇번이나 감사의 절을 했다. 그리고는 메모해 두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나 해나갔다.

“요즈음 학교에서 시키는 보건교육은 기본적인 위생생활을 습관화 시키기 위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도하는 것만으로는 빨리 길들이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위선 아이들이 식후에 이를 꼭 닦는지 지켜보시고 닦지않는 아동은 부모님께서 함께 이를 닦으시면서 지도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용변후나 놀고난후 식사전에는 손을잘 씻고 있는지도 관찰해 주시고 아침식사후 대변은 집에서 꼭보고 학교에 올수 있도록 습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분 하기로 했던 얘기가 한시간을 지나도 일어서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

양호교사는 학교에서 어떤일을하며 아이들에

게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도움을 주며 학교에서 해주는 예방접종은 무엇 무엇이 있고 앞으로 어머님들께서는 아이들 건강관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열심히 했더니 양호교사가 왜 있어야 하는가를 알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들어 주었다. “끝으로 어머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학교보건이 활성화 될수없으며 아이들의 건강관리도 저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적은일이나 큰일이나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박수와 고생하신다는 위로도 받고나니 일을 추진하면서 속상하고 힘겨웠던일이 다 잊혀지고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또 다음일을 시작했다 “양호실을 옮겨보자”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하는수없이 강당 1/4을 막아서 이사를 했다.

넓은 곳으로 옮기고 보니 양호실 살림살이가 너무 초라했다. 학교에는 돈이 없으니 결국은 교육구청에다 때를 쓰는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집행해야될 예산을 줄이고 줄여서 연말에 보조를 받을수가 있게 되었다.

예쁜커튼도 만들고 자외선 소독기도 사고 냉장고에다 식기건조기도 준비했다. 아이들과 마주앉아 상담할수 있도록 예쁜 책상과 의자도 놓여졌고 난로는 가스난로를 설치했다.

병원도 약국도 없는 동네에서 양호실은 지역사회의 의료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다녔다.

보건소와 협의해서 우리아이들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날은 온동네 꼬마들이 학교로 몰려온다.

소아마비, 디티, 뇌염, 홍역, 볼거리, 풍진까지 무료로 해주었다. 주민들 중에 갑자기 환자가 생길때도 비상약이 없을때에는 학교로 달려오게 되었다. 목욕탕 문제를 해결못해 애타하고 있을 때 교육감님께서 오셨다. 이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학교에 목욕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특별 예산을 보내 주셨다.

남아서 못쓰던 목욕탕을 수리하고 망가진 시설을 다시하고 온수보일러를 설치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더운물에 목욕도 할수있게 되었다.

학교나 양호실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하루1시간씩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학급수가 적기 때문에 1주일에 한시간씩 들어가게 되니 교과과정이나 계절에 유행하는 질환에 대한 보건교육도 빠짐없이 지도할수 있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까닭인지 소화기 질환을 호소하는 아동이 유난히 많더니 요즘은 좀 줄었다. 몇일만 가물어도 식수가 모자라 세수하는 물까지 아껴써야 하는 형편을 보면 지하수가 땅속 깊히 들어가지 않은것 같고 또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수는 반드시 끓여먹도록 매주일 가정통신을 보내 홍보한 덕분에 주민 모두가 물을 끓여먹게 되었기에 소화기 환자도 줄은것 같다.

봄이면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고, 5월이면 아카시아 향기속에서 빠꾸기의 노래를 벗삼아 공부하고, 여름이면 친구의 손톱에 빨간 봉숭아 물을 들여주며, 가을에는 뒷산에 주렁 주렁 달린 대추와 밤을 따다 친구들과 오손 도손 나누어 먹을줄 아는 정겹고 순박하기만한 그아이들- “제생일인데 이사탕 선생님께 드리려고 가져 왔어요” 하며 알사탕을 까서 내 입속에 쏘옥 넣어주던 명희, 스승날이라고 돼지 저금통을 뜯어서 산 손수건 한장을 내손에 꼭 쥐어주던 진옥이, 집안이 어려워 무상으로 주는 우유를 혼자먹을수가 없어 아빠에게 드리고 싶어하던 경옥이-.

나는 이렇게 자랑스런 제자들이 있기에 오늘도 또다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온정력을 불태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